

청소년 흡연실태와 대책

박 명 윤*

I. 머리말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성격 때문에 아동기와 성인기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특성으로 인하여 청소년기는 불안정하고 변화 무상한 시기로 특징지어지며 “질풍과 노도의 시기” “제2의 탄생기” 등으로 불리워진다.

고대사회에도 청소년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취급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과 같이 청소년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사회에서의 청소년문제는 이전의 청소년문제와는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문제의 원인은 그 시대상황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문제를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청소년문제는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가정, 학교, 사회환경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특히 산업사회의 발달은 급격한 공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가정·학교·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변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이들 세 환경의 교육적 기능의 손실을 가져왔으며 이것이 청소년문제의 중요한 원인이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문제 중에서 흡연율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높다. 즉 육체적·정서적으

로 백해무익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적으로 매년 약 250만명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3만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우리 청소년들의 높은 흡연율을 고려하면 이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20~30년 후인 2천년대 우리나라 장년층의 건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피해를 받아 국력의 소모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소년기 흡연의 용납은 사회규범에서 첫 일탈행위로 용인하는 것이므로 다음 단계의 청소년 범죄로 연결된다.

II. 흡연실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속하여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흡연은 상당기간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왔으나, 1980년대 교복 및 두발자유화로 행동의 제약이나 통제가 많이 줄었으며 최근 양담배의 수입과 광고 및 판촉 등의 영향을 받아 흡연은 청소년들에게 보편화 되었다.

대한결핵협회가 1985년에 실시한 국민 전체의 흡연을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15세이상 남자 조사자(13,444명)의 61.5%가, 여자 조사대상자(15,737명)의 6.8%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

* 한국청소년연구원

타났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일순교수팀이 전국 남자 중·고등학생(1988년 3,437명, 1989년 3,055명, 1991년 3,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흡연실태 조사에 의하면 남자중학생의 경우 흡연율이 1988년에 1.8%에서 1989년에 1.5%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1년에 3.2%로 증가하여 1988년에 비해 1.4%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는 88년 23.9%에서 89년에 32.0%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91년에는 32.4%로 3년 전에 비해 8.5% 증가하였다(표1 참조).

〈표 1〉 중·고등학교 남학생 흡연율

(단위: %)

학교·학년		연도		
		1988	1989	1991
중학교	1학년	0.4	1.8	1.9
	2학년	2.1	1.6	3.8
	3학년	2.7	2.0	3.6
	계	1.8	1.5	3.2
고등학교	1학년	9.5	17.3	14.3
	2학년	19.1	26.8	38.2
	3학년	40.4	50.0	44.8
	계	23.9	32.0	32.4

자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흡연율(44.8%)은 같은 연령의 미국 남학생의 흡연율이 15%와 일본학생 26%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가히 충격적이다.

여학생의 흡연실태는 1991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흡연을 과거에 경험하였거나 현재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중학생의 경우 3.6%, 고등학생은 8.0%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흡연자를 포함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흡연경험율은 11.3%에 이르고 있다(표2 참조).

흡연하는 학생들의 담배를 피우게 된 동기는 중학생의 경우 1989년도 조사에서는 '호기심으로'(36.4%)가 제일 많았고, 스트레스 해소(31.8%)순이었으나 1991년도 조사에서는 '호기심으로'(55.5%)가 제일 많았고 다음이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15.1%)순이었다.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는 '호기심으로'(31.3%),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26.1%), '멋있게

〈표 2〉 여학생들의 흡연율

(단위: %)

학교·학년	흡연별				
	현재흡연	과거흡연	비흡연	계	
중학교	1학년	0.8	2.1	97.1	100.0
	2학년	1.0	2.3	96.7	100.0
	3학년	1.8	2.9	95.4	100.0
	소계	1.2	2.4	96.4	100.0
고등학교	1학년	1.3	6.3	92.4	100.0
	2학년	1.9	3.8	94.4	100.0
	3학년	4.3	7.0	88.8	100.0
	소계	2.4	5.6	92.0	100.0

자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이려고'(24.2%) 순이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중학생이 '호기심으로'(40.4%), '스트레스 해소'(22.8%)가, 고등학생도 '호기심으로'(52.5%), '스트레스 해소'(22.7%)가 중요한 흡연동기이었다(표3 참조).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에게 금연의사를 조사한 결과, 중학생 흡연자의 68.9%와 고등학생 흡연자의 65.3%가 앞으로 담배를 끊겠다고 대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중학생은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한 학생(82.4%)이 남학생보다 많았으나, 고등학생은 오히려 남학생보다 담배를 끊겠다고 대답한 학생(63.5%)이 적었다.

III. 흡연피해

청소년의 흡연문제는 보건의료적인 측면과 청소년의 비행, 탈선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흡연이 해롭다는 점에 대해 청소년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흡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1.5%(중학생)~1.9%(고등학생) 정도의 소수였다.

또한 금연을 하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금연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중학생 50.0%, 고등학생 68.4%) '흡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1. 흡연과 청소년의 건강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입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 문

흡연동기	중 학교				고 등 학 교			
	남 학생			여학생	남 학생			여학생
	1988	1989	1991	1991	1988	1989	1991	1991
호기심으로	40.0	36.4	55.5	40.4	24.5	31.4	31.3	52.5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	16.7	18.2	15.1	7.0	26.9	29.3	26.1	11.3
멋있게 보이려고	16.7	4.5	5.9	7.0	4.3	4.7	24.2	1.4
스트레스 해소	13.3	31.8	8.4	22.8	31.0	25.8	6.4	22.7
기 타	13.3	9.1	15.1	22.8	13.3	8.8	11.9	12.0
계	100.0	100.0	100.1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담배갑의 경고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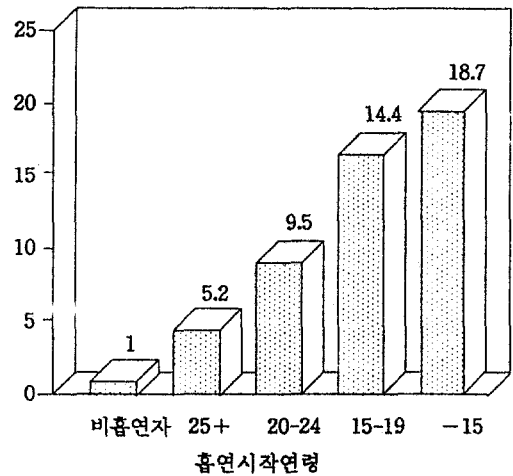
역사상 담배의 판매와 보급을 가장 많이 반대했던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는 「담배는 눈에 보기 싫음을 주고, 코에는 증오를 주며, 뇌에는 손상을 일으키고, 폐에는 해를 주며, 입에서는 고약한 냄새를 낸다」라고 평하였으며, 19세기 미국의 시인 홉즈는 「담배는 악마로부터 나온 더러운 잡초다. 그것은 너의 지갑을 말리고 너의 옷을 태우며, 그래도 모자라서 너의 코를 굴뚝으로 만들어 몸을 망친다」라고 혹평을 했다.

영국왕립의사회는 담배 1개비를 피울때마다 5분 30초씩 수명이 단축된다고 오래전에 밝힌 바 있다. 즉 흡연자의 수명은 5~8년이 준다는 것이다. 의학자들은 건강장수를 위협하는 최대의 단일 원인으로 흡연을 꼽고 있다.

미국 의무총감(Surgeon General)의 1989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5.2배인데 비하여 15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경우에는 18.7배에 달한다(그림 1 참조). 즉 청소년의 흡연은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임신부가 담배를 피우면 저산소증과 혈액순환장애로 인하여 태아의 몸무게에 영향을 주어 출산시 아기 체중이 평균 200g이 적으며, 유산 및 조산율도 3.3배나 높고 기형아 출생율과 신생아 사망률도 높다. 이러한 모자보건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요즈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들의 흡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사망비



자료 : 미국의무총감 보고서(1989)

[그림 1] 남자에게 흡연시작 연령에 따른 폐암의 사망비

담배연기속에는 약 4천여종의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담배가 불에 탈때 그 중심온도가 900℃에 이르게 되어 유기물질이 열분해, 열합성, 중류, 승화, 수소화, 산화, 탈수화 등의 과정을 거쳐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을 생성해 낸다. 이들 화학물질은 성질상 타르, 니코틴, 기체성분의 셋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타르(Tar)는 일반적으로 뱀배진이라고 부르는 독한 물질이다. 담배가 우리 건강에 주는 해독의 대부분은 타르속에 들어 있는 각종 독성

물질과 발암물질에 의한 것이다. 타르는 담배연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혈액에 스며들어 우리 몸의 세포, 장기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잇몸, 기관지 등에는 직접 작용하여 표피세포 등을 파괴하거나 염증을 일으킨다.

니코틴(Nicotin)은 마약과 비슷한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소량의 니코틴은 신경계에 작용하여 교감 및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며 다량의 니코틴은 신경을 마비시킨다. 담배 한개피에는 1mg 이하의 니코틴이 들어있는데 니코틴 40mg이면 치사량이 된다. 니코틴은 말초혈관을 수축하여 맥박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린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며, 그 외에도 소화기계, 내분비계, 호흡기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기체 성분에는 일산화탄소, 산화질소, 암모니아, 하이드라진, 나이플로스 아민계 물질 포름알데하이드와 아크롤데인계 물질 등 많은 독성 물질들이 들어있다. 이 중에서 일산화탄소(CO)는 혈액의 산소운반 능력을 감퇴시켜 만성저산소증 현상을 일으켜 신진대사에 장애를 주고 조기 노화현상을 일으킨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마치 적은 양의 연탄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고 있는 것과 같다.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모든 세포와 조직이 약하여 담배연기에 노출될 경우 피해가 더욱 심하다. 또한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성인기의 시작보다 니코틴 중독중에 더 길게 빠진다. 니코틴 중독이 된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금단증상이 일어난다.

2. 흡연과 청소년 비행

대개의 경우 청소년 비행의 첫걸음은 흡연으로부터 시작된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 끼리는 자연스럽게 그룹(또래집단)이 형성되고, 이는 술이나 다른 약물에 까지 탐닉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 자체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각종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체육청소년부가 1989년에 조사한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남용하는 약물 상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흡연은 음주(.487)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고, 그 다음이 본드(.250), 최면제(.197), 대마초

(.173), 각성제(.132), 안정제(.120), 마약(.077), 히로뽕(.060) 순으로 나타났다(표4 참조).

전체적으로 볼때 청소년의 약물남용 시기가 비행행위시기 보다 먼저 일어난다. 즉 13세에 흡연과 음주를 시작한 후, 14세에 반항행위를 시작으로 음란비디오관람, 무단결석, 술집출입, 금품간취, 흉기소지, 가출, 성관계, 학교처벌, 경찰서 처벌 등의 비행이 나타나며, 14~15세에 각성제, 본드, 안정제, 최면제, 대마초, 심지어는 마약과 히로뽕 등의 약물을 사용한다(그림2 참조).

흡연행위는 청소년들의 꿈많은 의식세계에 전환점을 줄 수 있다. 즉 청소년의 반항·도발심리에서 시작되는 흡연은 대개 음성적으로 이루어 지므로 적극적인 인생관보다는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성격을 조장할 수 있으며, 지나칠 경우 범죄의 눈에 빠질 소지를 만든다. 또한 흡연을 청소년의 인격발달에도 영향을 미쳐 인격장애나 정신장애의 요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숙된 성인기로 자연스러운 이행을 어렵게 한다. 흡연이 일반적으로 다른 비행보다 먼저 시작되므로 만약 청소년의 흡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면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은 지금보다 훨씬 감소될 것이다.

IV. 대 책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것을 막고 이미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은 금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1. 가정에서의 금연지도가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흡연율이 높으므로 부모 자신이 담배를 피우면 자녀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의식을 가지고 금연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불화, 이혼, 알콜중독, 실업 등의 문제가 있는 가정의 청소년 흡연율이 높으므로 우선 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여야 하며, 무관심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 지나친 기대와 간섭, 과잉보호 등을 지혜롭게 해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의 가방, 책상 등에서 담배,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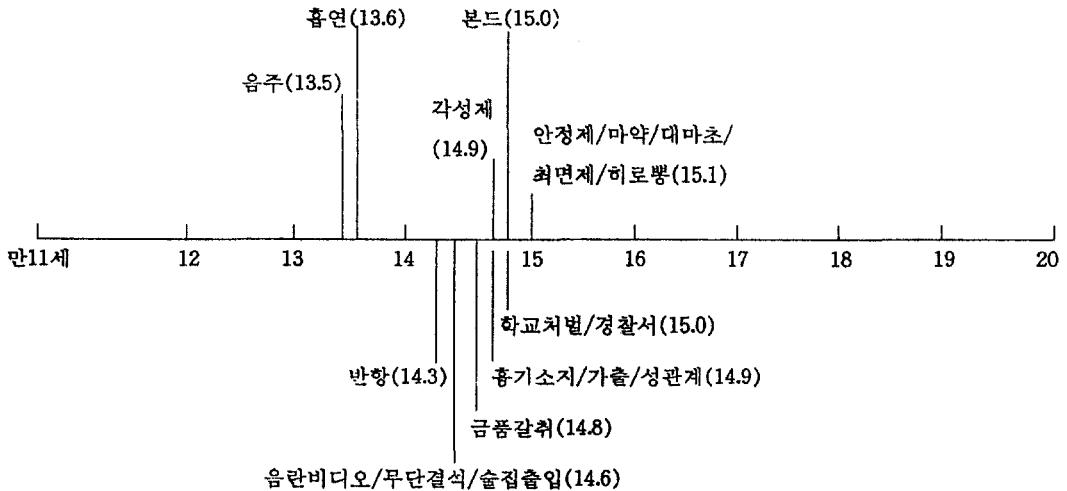
<표 4>

약물간의 상관관계

	흡 연	음 주	안정제	취면제	각성제	대마초	본 드	마 약
히로뽕	** 0.060	** 0.050	** 0.097	*** 0.170	0.004	*** 0.315	*** 0.279	*** 0.481
마 약	*** 0.077	** 0.047	*** 0.143	*** 0.233	0.019	*** 0.311	*** 0.287	
본 드	*** 0.250	*** 0.189	*** 0.248	*** 0.245	*** 0.115	*** 0.413		
대마초	*** 0.173	*** 0.109	*** 0.221	*** 0.191	** 0.104			
각성제	*** 0.132	*** 0.146	*** 0.165	*** 0.333				
취면제	*** 0.197	** 0.110	*** 0.394					
안정제	*** 0.120	0.058						
음 주	*** 0.487							

*P < .05 **P < .01 ***P < .001

자료 : 체육청소년부



자료 : 체육청소년부

[그림 2] 학교 청소년의 약물남용 시기 및 비행행위 시기

남 등이 발견되거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날 경우에는 대화와 설득으로 흡연의 근본적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흡연이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님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2. 학교 전체를 금연지역으로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교내 흡연을 철저히 규제 단속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것은 교내는 물론 학교 바깥이라도 학교관계 행사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위반 학생에 대한 벌칙은 정학 또는 벌금을 물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등학생의 두발 및 교복이 자율화되 사회적 통제가 불가능해진 데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흡연을 한 학생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으나 내신성적이 대학입시에 반영된 이후 흡연을 이유로 중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을 꺼리고 금연학교 입교나 화장실 청소 등의 징계로 대체하기 때문에 청소년 흡연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학교 교실, 운동장 등 전체구역을 완전 금연지역으로 하고 학생들에게 철저한 생활지도를 하며 흡연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중징계를 하여야 한다.

3. 금연지도를 직급학교 보건교육의 정규과목으로 채택한다.

금연교육은 국민학교부터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담배의 해독을 알려주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학년별 금연지도 부서와 지역별(각 구 또는 동별) 금연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연지도는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하지 말라는 식의 강압적 교육이 아니라 담배가 왜 나쁜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설득력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즉 앞으로의 금연교육은 현재의 사후교육방식이 아닌 예방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내의 금연교육으로 시청각교육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 생활지도를 통한 금연유도, 교과시간 중의 금연교육, 학생들의 자율적 금연서를 육성, 흡연 교사들의 금연사례 소개 등이 있다. 교사들의 흡연이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흡연교사들은 술선수범하여 금연하여야 한다.

4. 청소년 금연을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한다.

미국 의무총감 쿠프박사는 「담배는 코카인과 같은 마약」이라고 선언하고 미국을 금연사회로 만들겠다고 강력한 금연운동을 추진하여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금연운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을 펴기 위하여 사회가 전체적으로 금연을 고무하는 풍토의 조성이 시급하다.

5. 담배 광고를 금지한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담배와 술에 대한 전면적인 광고금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그리스, 이탈리아 등 20여 개국이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술과 담배에 관한한 비교적 관대한 나라로 알려져 왔으나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높아 현재도 TV와 청소년용 잡지 등에 한해서 술이나 담배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93년부터는 일체의 직·간접적 담배광고를 금지하며 알콜함량 1% 이상인 음료에 대해서도 일체 광고를 금지시킨다.

우리나라는 88년 7월에 담배사업법을 개정하여 수입 담배의 광고를 허용하였으며 이들 외국 담배회사들의 판촉광고에 속아 양담배를 피우는 것을 멎으로 생각하는 풍조도 청소년층을 포함한 흡연 인구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담배사업법을 다시 개정하여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최근 외국 담배회사들이 국내유통업체를 통해 담배자판기를 경쟁적으로 설치하여 전국의 자판기 1만3천여대 중 외국산담배가 80~90% 가량을 차지한다. 자판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손쉽게 담배를 살 수 있어 흡연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담배자판기 설치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6. 포괄적인 금연법을 제정한다.

흡연은 금연 권고만으로는 막기 어려우며 특히 공중 도덕심이 결여된 흡연자들 가운데는 법적인 규제없이도 흡연행위를 막을 수가 없다. 담배를 피울 권리가 애연가에게 있다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담배연기를 혐오하고 만리할 이른바 혐연권 또한 비흡연자에게도 있는 만큼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미 세계 70여 개국이 금연법을 제정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보호법, 공중위생법, 공연법 등에 금연규정이 있으나 규제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하므로 포괄적인 금연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연법을 제정할 때까지는 현재 금연 규정이 있는 법들을 강력히 집행하여야 한다.

V. 맺는 말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다. 이미 역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지만 담배는 많이 피우면 피울수록, 오래 피우면 피울수록 그리고 일찍 피우면 피울수록 흡연 피해는 그만큼 커진다. 즉 한나라의 담배로 인한 피해는 결국 그 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신체발육과 두뇌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여러가지 성인병을 조기에 발생시킨다. 특히 한창 두뇌가 발달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흡연율이 선진

국 청소년들 보다 높은 것은 장래 우리나라의 두뇌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질 요인이 될 수 있다.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시대가 될 것이며, 이 시대의 당당한 주역국가의 일원이 될 한국을 이끌고 나갈 오늘의 청소년들의 사명은 막중하다. 그러나 오늘의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할 경우 한국의 앞날은 밝으나, 지금처럼 그렇지 못할때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코 낙관적이지 못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도 구미 선진국들과 같이 오는 2천년까지는 담배를 완전히 추방하여 담배연기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강력한 금연정책과 금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